

# 예비사서들의 도서관실습 교육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

## A Qualitative Study on Prospective Librarians' Library Practicum Experiences: Applying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구 정 화 (Joung Hwa Koo)\*\*

### 초 록

이 연구는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 겪은 개인적 경험을 기술하되, 실습 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과 이를 둘러싼 내·외적인 정황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 중 도서관실습 교육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실습과정 중에 경험한 모든 일상과 그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기술된 내용을 모두 녹취하여 전사하고 이를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서관실습 교육참여자들의 경험 내용은 크게 5가지 구성요소와 17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분석되었다. 그 경험의 구성요소로는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형성 과정', '진로 설계의 구체화 과정과 도전', '실습 전 준비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실습 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그리고 '실습 후 경험과 평가로 요약되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서관실습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prospective librarians' library practicum experiences by using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library practicum in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t the A university. Following Giorgi's four ways of phenomenological description, the study analyzed the collected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Prospective librarians' library practicum experiences were able to analyze as five significant themes and seventeen sub-categories of the themes. The five main themes are as followings: 'formulating perception of libraries and librarians', 'formulating career design through self-development and challenges', 'growth and challenges in preparing the library practicum', 'growth and challenges in the middle of library practicum' and 'experiences after the library practicum and the evaluation.'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alternative programs of library practicum and the directions for performing the program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키워드: 도서관실습, 예비사서, 현상학, 질적 연구

Library Practicum, Prospective Librarians, Phenomenology, Qualitative Study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조성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hkoo@hnu.kr)

논문접수일자 : 2018년 11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12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 269-296,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4.269]

## 1. 서론

‘도서관실습(library practicum)’ 교육은 문헌정보학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을 도서관 및 정보센터라는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사서 및 정보전문가의 역할과 실무를 이해하고 실천적 수행능력을 기르게 하는 과정이다. 특히 도서관이라는 배타적인 직업 공간을 두고서 그곳에서의 전문직 양성이라는 직업 교육에서 비롯된 근대적 문헌정보학 교육은 이론교육만큼이나 현장 기반의 실무교육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김성준 2011a; 이수영, 김유승 2012). 나아가 도서관실습 교육은 장차 사서가 될 학생들에게 자아 인식 개발을 돕고 정보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키며 사명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필수적인 교과과정으로 여겨지고 있다(차성중 2015; 정종기 2011). 이에 학계에서는 실습교육의 중요성을 통감하여 이 과정을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선정할 뿐 아니라, 실습 과정 중 겪게 되는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해 왔다(곽동철 2011; 노영희 2005; 노동조 2009;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차성중 2016).

그러나, 도서관실습 교육과 관련한 이전 연구들이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하기에는 구체적이고도 깊이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이 선행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은 향후 사서가 되었을 때의 사고와 행위의 틀을 조성하는 데 주요 기저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 자체를 종합적이고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한 선행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에 느끼는 만족과 불만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으나(이수영, 김유승 2012; 유사라 2012; 차성중 2015; 차성중 2016; 박지영, 박성재 2017), 예비사서들의 교육과정에서의 ‘경험’ 그 자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이해한 연구는 현재 없다. 다만, 사서교사를 위한 교육실습 경험만이 기술되고 논의된 상황이다(권선영, 박장순 2014).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실습을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주관적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을 채택하여(Giorgi 1970)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현상학은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받지 않고 경험세계의 근처에 있는 본질을 밝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남인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실습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기술·분석하여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실습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도서관실습’ 교육과 관련하여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다양한 용어들로 혼용하고 있다. 이수영, 김유승(2012)은 34

개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개설된 실습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미가 '실습교육', '인턴십', '도서관실습', '도서관정보센터실습', '문헌정보학 인턴십', '사서실습', '정보센터 현장 실습', '사서 실무실습'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고 있음을 조사하였다. 문헌정보학용어사전(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에서는 이와 관련한 용어를 '도서관실습'과 '실습과목'으로 지정하고, 도서관실습(internship)은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과정의 이수에 요구되는 전문 실습 과정으로 일정 기간 실습 후 평가하는 교육과정"(97)으로, 실습과목(practicum)은 "이론의 연구 및 학습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실제 업무 및 서비스를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진 교과과정의 한 과목"(216)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습교육이 인턴십과정(internship) 혹은 현장 실습프로그램(practicum)으로 명명될 때 각각의 강조점과 의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문헌정보학 영역에서는 이 두 용어의 의미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통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분영(1983)은 국내 도서관실습 운영실태를 조사하면서 미국의 도서관실습 교육의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소개하고 이 다양한 종류 중에서 국내에서는 어떤 형태로 도입되었는지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용어들의 의미에

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구분하였다.<sup>1)</sup> 이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실습교육은 현장실무(field projects)나 인턴십(internship)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습제도(practicum)'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즉, 도서관실습은 대부분 학기 중 혹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3-4주 동안 도서관활동을 참관 또는 경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국내 문헌정보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 바로 이 실습제도이고 이를 유사 용어들로 달리 명명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최근 몇몇 선행연구에서 도서관실습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턴십의 개념을 문헌정보학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개념은 현장 교육의 일종으로 실습제도이긴 하나 별정직으로 임명되어 수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존 실습제도와 차이가 있다(구분영 198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현장 실습 교육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도서관실습' 교육이라는 대표용어로 사용하고, 대학에서 배운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실무를 경험하고 익히기 위한 실무교육의 의미로 이해하고 별정직을 임명받아 약간의 수당이라도 받는 인턴십과 구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권선영, 구정화 2018).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서관실습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도서관실습 교육환경을 조

1) 미국의 도서관실습의 종류로 '실습제도(practicum)', '현장연구(field projects)', '대학원과정의 인턴십(pre-master's internship)', '수련제도(trainee program)'가 있다. 구체적으로, '실습제도(practicum)'는 2주 혹은 5주동안 전시간 고용되거나, 1주일에 약 10-12시간씩 1-2학기동안 현장업무를 경험시키는 제도로, '현장연구(field projects)'는 실습제도에서 보다 큰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특정한 업무달성에 초점을 주는 제도로, '인턴십(internship)'은 대학원 학위 과정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지키면서 약 7-12개월동안 전시간(full-time)으로 도서관에 근무해야 하는 제도로, 그리고 '수련제도(trainee program)'는 전문직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학습에 필요한 업무보다는 도서관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도서관에서 전시간제로 채용하는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구분영 1983, 12-13).

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구본영 1983; 이수영, 김유승 2012), 도서관실습 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분석한 연구(유사라 2012; 차성중 2015, 2016; 박지영, 박성재 2017) 그리고 현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연결하여 도서관실습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연구(곽동철 2011; 노영희 2005; 노동조 2009;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차성중 2016)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문헌정보학 학문 전체의 교육과정개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현장 실습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내실 있는 실습교육 모델을 제시하거나 표준화된 지침을 제언할 수 있을 만큼의 심층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 분야의 더 많은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길 요청하고 있다. 특히, 수요자 관점에서 문헌정보학과 전공 학생들이 실습교육에서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 중 어떤 요인들에 의해 큰 성과와 만족감을 경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가 미비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이에 실습생 즉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와 불만 사항을 종합하여 더욱 표준화된 도서관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다. 나아가, 도서관실습 교육의 효과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실습교육을 실습 전, 실습 중 그리고 실습 후 교육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실습전 교육인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과 운영에 관한 제언을 시도한 연구도 있다(권선영, 구정화 2018). 이뿐 아니라, 이전 연구가 주로 실습생(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불만 또는 만족도에만 기반하여 교육프로그램 개

발을 제언해 왔던 것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이에 실습생들을 지도하는 실습지도자 혹은 실무자(사서)들 즉, 공급자 관점에서 경험과 의견을 반영한 실습교육의 방향과 방법들을 제언한 연구들도 있다(차성중 2017; 유사라 2014).

다른 한편으로, 예비사서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실습 과정도 예비사서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사서교사는 일반 사서직 업무 이외에 '교사'로서의 업무도 같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사서를 위한 교육과 다른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김성준 2011a; 김성준 2011b; 정종기 2011; 권선영, 박장순 2014). 이들 연구는 실습 과정 중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만족 혹은 불만 요소로 기인하는지 분석하고(김성준 2011a), 이를 바탕으로 예비사서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하였으며(김성준 2011b), 실습교육 참가자들의 사고를 증진하기 위한 실습일지 작성과 이를 위한 저널링 기법을 소개하고, 저널피드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정종기 2011). 또한, 예비사서교사가 실습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그 정황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실습교육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연구도 있었다(권선영, 박장순 2014).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도서관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조사를 한 구본영(1983)연구를 시작으로 관련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즉, 도서관실습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이를 필수과목으로 선정하고 그 교육내용과 방법에 내실을 기해야 함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논의와 실례를 제시하는 것에는 미흡했다. 또한, 이전 연구들은 도서관실습 환경, 교육내용, 운영방식 그리고 실습생들의 만족 혹은 불만족 사항 각각에 대해 주로 설문지법을 통해 부분적인 요소들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 그래서 각 요소들의 한 단면에 대해서는 세밀하고도 깊이 있는 분석과 논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예비사서들의 실습교육 '경험 그 자체'를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그 경험의 전체 상황과 맥락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논의가 부족했다. 도서관실습 교육은 다른 어떤 교육방법보다 실습참여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을 통해 교육적 성과가 얻어진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실습교육 과정 중의 모든 만족 혹은 불만족의 요인이 상황적 맥락과 경험속에서 기인함을 인정하고 경험 그 자체를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사서들의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과 그 경험이 의미하는 본질과 맥락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함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현상학(phenomenology)은 살아있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철학이자 방법이며, 연구대상이 되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한 이해를 요구한다. 현상학의 목적은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이며 이를 위해 명상적인 사고과정을 그대로 기술하되 그것을 통해 경험과 행동의 본질을 설명

하려는 데 있다(김분한 외 1999).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에는 대표적으로 Coalizzi(1978), Giorgi(1970) 그리고 Van Kaam(1969)가 제시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현상학적 기술 방법론을 보급한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을 본 연구의 분석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은 인간의 의식 및 사고 속에 드러난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 데 가장 충실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더욱 체계적인 분석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데서 과학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Giorgi는 연구대상이 되는 인간의 사고과정을 계속해서 도출해 내는 '자유연상법(free variation)'을 통해 변화하는 의식 속에서도 불변의 의식과 경험의 본질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Giorgi and Giorgi 1999). 그러므로, 실습참여자들이 교육과정 중에 겪은 무수한 경험들에 대해 회상 또는 연상하는 과정을 종합적이고도 상세히 기술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주관적 경험의 의미와 그 본질을 밝히는 데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인정하여 이 현상학적 기술방법을 본 연구의 기술방법이자 분석 도구로 채택하였다.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분석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1) 대상자의 언어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본래의 의미 단위를 규명하고(identifying natural meaning unit); (2) 대상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주제(theme)를 규명하고; (3) 연구자의 언어로 주제를 구체화하여 대상자의 경험이 대상자에게 의미하는 중심의미(focal meaning)를 규명하여; (4) 연구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를 기

술하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 (5)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만든다”(김분한 외 2007, 1210-1211)이다. 이 현상학적 기술분석법을 기본 틀(frame)로 삼고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디자인한 연구 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도서관실습 참여자인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살펴보고자 ‘사서를 미래의 직업으로 고려하게 된 계기’, ‘실습교육 경험에 대한 인식’,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경험의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습교육과 관련된 경험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실습교육 경험은 무엇이고 그 현상의 내면에 자리한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경험 구조는 무엇인가?

###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A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중 도서관실습 교육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을 발굴하였다. 실습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은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연구에 참가한 이들이 추천하는 다른 학생들을 계속 접촉

하여 참여자를 발굴하고 선별하였다. 특히, 이들 중 연구자와 비교적 관계 형성(rapport)이 잘 되어 있으며 심리적, 정신적 변화 등 경험을 언어적으로 풍성히 논의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자원자에 한해서 표본을 선택하였다. 자원자 중에서 연구 참여 동의를 작성한 9명의 참여자를(남학생 4명, 여학생 5명)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9명이라는 소수의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에는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주목적인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모집된 표본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범주의 정보와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포화상태(saturation point)’를 확인했기 때문이다(Schutt 2006, 312). 즉, 연구대상과 1:1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6번째 참여자와의 면담 과정중 이전 참여자들과 다르거나 새로운 범주의 경험과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자료수집에 있어 포화상태가 이르렀음이 확인되었다. 그 이후 7번째, 8번째 참여자들에게도 재차 그 상태가 확인되어 9번째 참여자를 끝으로 참여자 모집을 중단하였다.

나아가,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반드시 자원자들(voluntary participants)만을 국한하였고, 이들에게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에는 심층 면접 시 참여자의 비밀보장과 중도 철회권리를 언급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을 모두 녹취한다는 것과 수집된 자료는 기술 부분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두 코드번호로만 기재한다는 것과 특정 이름이나 지명도 부호로 표기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 3.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겪은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2018년 5월 21일 실습을 경험하였던 연구 참여자 1명에 대해 약 1시간에 걸쳐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심층 면담에서 필요한 질문의 수정, 용어의 수정, 질문항목 순서의 조정 등 보완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018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참여자와의 실제 1:1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시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참여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런 다음 Patton(1990)의 여섯가지 질문 유형 즉, '배경·인구통계학적 질문', '경험·행동', '의견·가치', '느낌·감정', '지식·사실', '감각적 질문'을 참고하여 "본인의 삶에서 도서관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실습을 하러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실습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것을 경험하였나요?", "실습 진행 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와 같이 개방적이고 반구조적인 질문형식을 사용하였다. 면담 횟수는 기본 1회로 진행하였으나 심층 면담 이후 더 상세한 경험 내용을 기술할 것으로 판단되는 참여자들의 경우 추가적인 면담을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녹취한 면담내용은 모두 전사(transcripts)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는데, 이때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Silverman(2005)이 제안한 대로 녹취한 내용을 연구참가자의 표현 양식 그대로 필사하였다.

### 3.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 방법을 분석을 위한 기본 틀(frame)로 삼되, 구체적으로 '전체 인식하기', '의미 단위 구분하기',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 '변형된 의미 단위의 구조 통합'이라는 4단계 분석방법을 시행하였다(Giorgi and Giorgi 1999; 이남인 2005).

1단계(전체 인식하기): 진술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유롭게 읽고 전반적인 느낌과 경험의 윤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기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음성자료, 필사 자료를 반복하여 듣고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편견 없이 자유로운 상태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전체 맥락을 인식하기 위해, 연구자는 현상학적 태도(phenomenologic attitude)로 연구참여자의 입장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표현된 의미를 주어진 맥락 그대로 이해하고자 연구자의 편견과 전문지식을 배제하는 판단중지적 태도(bracketing)를 취하였다.

2단계(의미 단위 구분하기):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연구주제 현상에 중점을 두고 단어, 구, 문장, 단락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그에 따른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다. 9명 연구참여자의 심층 면담을 전사한 자료 중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제외한 후 42쪽 분량의 관련 내용만을 추려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491개의 의미 단위를 작성할 수 있었다.

3단계(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 진술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진술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어 애매하므로 이를 '변

형'하였다. 이는 연구자의 '반성(reflection)'과 '상상적 변형(imaginative variation)' 과정을 통해 진술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표현을 다시 살펴보고 의미 단위의 맥락적 의미를 살펴 보면서 이를 학문적 표현으로 진술하는 연구자의 능력이 요구된다. 다만, 학문적인 표현 진술이 어려운 경우 상식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였다.

4단계(변형된 의미 단위의 구조통합): 3단계의 변형된 의미 단위들을 유사한 것들끼리 분류하고 주제범주를 찾아 그 '구성요소(constituent)'를

재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사서의 교육실습에 대한 경험의 구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5개의 구성요소와 17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예시는 <표 1>과 같다.

### 3.5 연구과정의 엄격성(rigorousness) 검토

질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성을 담보한 일반화의 확보와 이를 통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소수 특수 집단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고 인간 경

<표 1> 구성요소 도출과정 예시

| 주요 문장<br>(Significant Statement)   | 의미단위 구분<br>(Natural Meaning Unit)  |   | 하위구성요소<br>(Sub-constituent) | 구성요소<br>(Constituent/<br>Main Theme) |
|--|--|---|-----------------------------|--------------------------------------|
| “집에서 책을 많이 사 볼 형편이 안되기도 했고 집도 좁고 해서 도서관에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조용한 분위기도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고 앞으로 일하게 되면 이런 곳에서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 집에서 책을 많이 사 볼 형편이 안되기도 했고 / 집도 좁음 / 집에 책이 많지 않음 / 학교에는 책이 별로 없었음 / 그래서 도서관에 자주 갔었음 /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함 / 도서관에서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냄 / 앞으로 일하게 되면, 이런 곳에서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음 | - 집안 경제사정이 좋지 못했음<br>-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됨<br>- 도서관 분위기에 호감을 느낌<br>- 진로결정에 있어 도서관에 대한 의미부여를 부여받음 | 성장 과정에서의 도서관 경험(A-1)        |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형성 과정(A)              |
|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 그러니까 도서관이요. 이기도 했고, 취업도 잘 안 된다고 하고, 배우는 것도 도서관 관련된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 그러니까 도서관 / 취업도 잘 안된다고 함 / 배우는 것도 도서관 관련된 것임 / 괜찮을 것 같음  | - 도서관에 대한 호의적 감정<br>- 취업에 대한 걱정<br>- 대학 진학 및 전공 결정  |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도서관 의미(A-2)     |                                      |

- 중심의미(Focal Meaning): 문헌정보학과로 진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와 도서관 사서로 직업적 진로를 결심하게 된 요인으로 성장 과정 중 경험한 도서관이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에 대한 경험은 빈도와 시간에서도 많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매우 호의적인 장소로 인식되었다. 이 경험적 요소가 만들어낸 도서관의 의미가 #1과 #2의 대학 진로 결정에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
- 상황적 구조적 기술(Situated Structural Description): 연구참여자#1은 성장 과정 중 경험한 경제적 빈곤이 도서관 이용을 더욱 강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도서관은 정서적으로 매우 호의적이고 의미 있는 물리적 공간이 되어 #1의 대학 및 진로 결정에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2는 도서관 물리적 공간에 대한 호의와 함께 청년취업을 저조하는 현 사회적 상황이 도서관과 관련된 학문인 문헌정보학을 선택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힘의 주관적 측면(상호주관성, intersubjectivity)에 의의를 둔다(Patton 1990). 이렇게 양적 연구와 다른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구 과정의 '엄격성(rigorousness)' 또한, 양적 접근과는 다른 잣대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Lincoln and Guba(1985)는 '진실성(trustworthiness)' 확인을 통해 질적 연구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양적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의 엄격성 즉 객관성(objectivity)은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을 통해 확보될 수 있듯이, 질적 연구라는 다른 패러다임에서는 '진실성'이라는 잣대를 통해 연구방법과 과정의 타당함이 증명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 과정의 진실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Lincoln and Guba(1985)

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이라는 네 가지 개념을 기본 구성으로 삼았다. 이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고 재구성하여 연구 과정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sup>2)</sup>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 사전에 1:1로 충분한 관계(rapport)를 쌓은 후, 1시간 이상의 심층 면담을 거쳤고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면담을 요청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주 연구자 이외에 다른 한 연구자가 이 연구 과정에 도우미로 참여하였고, 연구대상의 모집부터 관찰과 면담 그리고 자료 분석(코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직한 연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차 확인하였다(peer debriefing). 특히, 자료 분석

2) 연구 과정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신뢰성(credibility)을 확인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질적 연구에서는 '전이성(transferability)' 혹은 '적합성(fittingness)'을 확인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개념의 신뢰도(reliability)의 개념으로 '감사 가능성(audibility)' 확인으로,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확증성(confirmity)' 확인으로 검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사실적 가치의 개념인 '신뢰성(credibility)' 확인은 연구 결과가 실제 구성하는 요인들에 의해 다시 증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는 장시간 연구대상을 관찰하거나 이들과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통해 현상의 이면과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한 현상에 대해 한 연구자 단독의 진행이 아니라 '동료 검색(peer debriefing)' 혹은 '연구참여자에게 의한 검토(member checking)'를 통해 정직한 연구진행과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함으로써 검증 가능하다. 둘째, 적용 가능성의 개념인 '적합성(fittingness)' 혹은 '전이성(transferability)'은 실제 현상과 연구 결과와의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연구참여자가 집단에서 발견된 결과가 다른 유사한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이것은 양적 접근의 외적 타당도(일반화) 검증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른 점은 연구결과가 일반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이 소수 연구참가자에게서 발견된 특이한 현상과 특성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가능한지의 여부(feasibility)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셋째, 일관성의 개념인 '감사 가능성(audibility)'은 동일한 조건의 반복연구로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즉, 유사한 맥락과 조건에 적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 결과는 모든 예비사서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 일반화는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환경과 맥락 속에 동일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feasible)이 확인되어야 한다. 넷째, 중립성의 개념인 '확증성(confirmity)'은 연구대상에 대한 선이해로 인해 연구자의 관점과 영향력이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소화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Baillie 2015; Billups 2014; Lincoln and Guba 1985).

과정에서 주관적인 독단과 해석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범주 혹은 구성요소 도출과 도출과정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연구자가 분석내용을 교차해서 재확인하였다. 주 연구자가 먼저 코딩한 내용을 다른 연구자와 공유하여 두 연구자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거듭해 최종 분석내용을 도출하였다. 이후 분석과정은 두 연구자가 토론을 통해 진행하였다.

둘째,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검증을 위해 연구참가자와의 심층 면담 이전에 폭넓은 선행연구를 하여 연구참여자들과 유사한 집단을 이해하였고, 어느 한 참여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증언한 현상이 다른 면담자 자신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지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서 수집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른 면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동일한 질문을 추가하여 이 사실을 거듭 확인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연구자가 함께 자료 분석 결과를 교차로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1차 자료 분석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선행연구로 돌아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결과 내용을 비교·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소수 표본집단을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가 모든 예비사서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동일한 환경과 맥락 속에 동일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feasibility)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성(neutrality) 확보를 위해 앞서 설명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연구 과정과 절차 전체를 도식화한 다음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선이해가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판단중지 태도(bracketing)를 취하였고, 연구자들 간의 확인과정(peer debriefing)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였다.

#### 4. 연구결과: 실습에 대한 경험의 구성요소

예비사서들의 실습에 대한 경험은 5개의 구성요소와 17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분석할 수 있었다. 예비사서들의 실습에 대한 경험의 구성요소는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형성과정', '진로 설계의 구체화 과정과 도전', '실습 전 준비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실습 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그리고 '실습 후 경험과 평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4.1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 형성과정(A)

연구 참여자들은 성장 과정 및 교육과정 속에서 도서관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많았고 그 경험이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던가, 독후감을 잘 써서 수상했거나, 부모나 친인척이 사서였거나,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 자주 이용했던 등의 경험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자신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으로 각인되었다. 이것은 결국은 자신이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후의 대학 졸업 후 진로 선택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1 성장 과정에서의 도서관 경험(A-1)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성장 과정 속 도서관에 대한 경험에서 도서관이란 공간은 '친숙함', '편안함'과 같은 이미지로 나타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이미지는 차후 이들이 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데 강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반면 이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경험 내지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서의 어떤 특정 이미지나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가치 같은 영역들은 이들의 전공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의미를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집에서 책을 많이 사 볼 형편이 안되기도 했고, 집도 좁고 해서 도서관에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조용한 분위기도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고, 앞으로 일하게 되면, 이런 곳에서 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연구 참여자 1)

4.1.2 전공 결정 과정에서의 도서관 의미 (A-2)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문헌정보학 전공 결정에는 크게 고민하거나 주저한 경험이 없었다. 그것은 이들 대부분이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진학을 위한 교사와의 상담과 주변 지인들의 전망과 취업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조언들이 진학 및

전공 결정의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과 선택을 확신하게 된 상황적 배경에는 개인적 경험이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도서관을 경험한 의미 있는 주변 지인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학 진로를 상담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진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사서에 대한 이미지 또는 도서관의 의미는 '책을 좋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일하기 적합한 곳'이라는 인식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그런 선생님들의 지도에 학생들은 순응하며 진로를 결정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취업이 힘든 현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향후 근무지가 비교적 미리 정해져 있는 직업군을 가진 학과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진로 결정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이 확인되었다.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 그러니까 도서관이요, 이기도 했고, 취업도 잘 안 된다고 하고, 배우는 것도 도서관 관련된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요. (연구 참여자 2)

사촌 누나가 도서관학과를 나왔는데요, 졸업하고 바로 취업도 되고 그랬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좋다고 하시고. (연구 참여자 3)

근데, 제가 좀 사람들 낯을 좀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진로 얘기하다가 보니까, 성격하고 잘 맞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어요. (연구 참여자 4)

## 4.2 진로 설계의 구체화 과정과 도전(B)

### 4.2.1 다양한 교과과정의 경험과 진로 설계에 대한 혼선(B-1)

대부분 비록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다’, ‘사서는 괜찮은 직업일 것 같다’, ‘내 성격과 잘 맞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공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막상 전공 교과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도서관업무 이외의 다양한 영역과 과정들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혼란과 긍정이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통적인 도서관 현장 내지는 업무만을 떠올리고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교수자들이 사서만을 최우선 직업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고 다양한 교과과정이 마련되어 가르치고 있는 것에 환영과 혼란이라는 양가감정을 드러냈다. 즉, 기대와 달라 혼란과 우려를 표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직업의 선택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을 표했다.

이 양가감정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인 혼란과 우려를 유발하는 주원인에는 단지 기대했던 바와 달랐다는 것 그 이면에 현재 다양한 직업적 선택과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신입생 시기의 혼란을 거쳐 본격적으로 2학년 때부터는 전공 교과에 대한 학점 이수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것은 환영하나, 실제로는 직업적인 진로와 교과들 간의 구체적인 로드맵(roadmap)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였고 혼란이 대부분이었다. 즉, 많은 교과목을 수강하는 가운데 어떠한 교과목들을 이수하고 활동을 경험해야 특정 직업군, 이를테면 사서, 사서교

사, 기록관리사, 시스템개발자 등으로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혼란의 근원이자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 관련 공부라서 컴퓨터 같은 건 안 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1학년 때부터 뭐 그런 거 듣고 그러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선배들 말로는 요즘엔 개발자로도 취업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6)

저는 IT 기획 분야 쪽으로 진로를 정했거든요, 콘텐츠 기획도 하고 서비스 기획도 하는 기획자요. 반드시 문헌정보학 전공해서 사서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한테는, IT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수업도 다른 학과 수업 것도 듣고 그랬는데, 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실습 나가서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저 진로와 잘 안 맞고... 꼭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연구 참여자 7)

### 4.2.2 도서관 봉사 및 관련 경험을 통한 진로 설계의 구체화(B-2)

도서관 사서가 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입학 을 결정하고 진로 및 교과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대부분은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도서관 근로 및 봉사의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향후 취업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재학 중인 학교의 도서관 관련 근로장학생의 자릿수는

매우 한정적이고, 도서관 관련 아르바이트의 경우, 학기중에는 학업으로 인해 지속하기 힘들며 도서관 자원봉사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이력을 쌓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참여자 대부분 전공과 관련한 봉사나 직업적 경험을 다양하고도 빈번히 경험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이를 충분히 지원해 줄 만큼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불만으로 표시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 일한다 생각하면 미리 관련 일을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일할 데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3)

하고 싶기는 해요, 그래야 이력서 쓸 것들 생기거든요, 교수님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쓸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막상 찾아보면, 시간도 안 맞는 것 같고, 많이 없어요. 또... 그게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도 있기도 하구요. (연구 참여자 4)

### 4.3 실습 전 준비과정 중에 경험하는 도전과 성장(C)

#### 4.3.1 도전 1: 실습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C-1)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실습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현하였다. 반면, 실습교육 수행 자체에 대한 긴장, 초조함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기대를 하는 경우, 엄밀히 말해 적극적 기대라기보다는 막연한 두려

움을 달리 표현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를테면, ‘그래도 그동안 배운 것들이 있으니 도서관 현장에 가보면 뭔가 다르긴 하겠지?’, ‘어떤 차이가 있긴 할까?’와 같은 기대는 막연한 기대였고, 우려나 걱정의 경우는 ‘교과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잘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못한다고 혼나면 어찌지?’와 같은 낮은 자신감 혹은 자기효능감 결여와 연결된 부분이 대부분이었다.

제가 갔던 곳은 국가대표 도서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해서 나를 경쟁력도 있고 하다보니, 좀 부담이 많이 가는 편이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잘하는 학생들이 온다고 하기도 해서 비교당할까 봐 많이 긴장되기도 했어요. (연구 참여자 1)

저희가 간 곳은 대학 특수성이 있어서 도서관도 그랬거든요, 제가 모르는 거가 많은데, 가서 잘 못 하면 어찌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좀 긴장은 되더라고요, 제가 가는 곳에는 졸업한 선배님도 계시다고 하니, 잘 보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물어보면 모르면 되게 창피할 거 같은 거? (연구 참여자 3)

#### 4.3.2 도전 2: 제한된 실습지 선택과 행정적 지원의 미비(C-2)

연구 참여자들이 실습을 나가기 전 준비해야 하는 과정은 먼저 실습지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실습지 선택과 선정 후에는 실습 직전 ‘실습 전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을 통해 실습 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과

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준비과정 이외에도, 개인적인 준비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그동안 배웠던 교과목을 다시금 살펴본다던가, 실습을 위한 의복을 구매한다던가, 해당 실습지의 위치나 특성을 미리 파악해 본다든가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준비들은 모두 실습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 같은 문제를 일부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습 전 가장 큰 문제점과 도전은 실습지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학과에서는 실습교육이 가능한 X개의 실습 기관들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우선 가능한 실습지가 다양하고도 많지 않음에 참여자들은 큰 실망감을 표하였다. 또한, 실습지 선정과정에서 여러 실습 기관들과 연락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타 행정적인 처리가 미흡하거나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하였다. 이를테면, 특정 기관의 경우 실습 인원의 변동이 있거나, 일부 기관이 기관의 사정으로 변동되는 등과 같은 상황에 유감을 표시했고, 이에 실습지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좁고 본인이 원치 않는 기관으로 배치되는 것에 큰 혼란과 실망감을 표시했다. 당연하게도 더 많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관, 소위 실습교육이 잘 짜여 있고 앞선 참가자들에 의해 평판이 좋은 실습 기관의 경우 선호가 클 수밖에 없는데, 실습지 선택과 선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었던 것 그리고 어려운 선택 이후 여타 행정상의 문제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 등은 실습을 앞둔 학생들 입장에서는 큰 실망과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에 실습 나갔던 선배들이 그러더라구요. 어디 어디는 배울만한 곳인데, 어디 어디는 절대 가지 마라. 하아... 거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런데도 선택의 폭이 많지 않고 좋은 곳은 학생들도 적게 받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그곳 아니면 딱히 다른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그냥 자폭하듯 갔어요. (연구 참여자 1)

#### 4.3.3 사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만족 (C-3)

A 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실습 전 하루 동안 총 8시간에 걸쳐 사전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실습 전 교육을 도운 바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육의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달라',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이를테면 관종별로 다른 교육 내용이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과 의견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체로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사전교육은 본격적으로 도서관실습 교육을 수행하기 이전에 매우 긍정적이고도 필요한 준비과정으로 평가되었다.

학과에서 진행했던 오리엔테이션은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실습 가서 하는 업무야, 가면 알려주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던가, 기본적인 태도를 비롯한 뭐 그런 것들이요, 잘 정리되어서 전달이 된 거 같아요. 다만, 미래나, 진로설정 같은 부분은 저희 학년에는 다소 좀 불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서를 하겠다는 생각이 변한 적이 없거든요.

(연구 참여자 1)

#### 4.4 실습 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D)

##### 4.4.1 실습 과정에 대한 의미부여: 경험 자체의 만족과 의의(D-1)

연구참여자들의 실습교육 과정 중의 경험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만족의 원인이 실습 과정 중 경험한 학습 내용과 질에 대한 만족감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학생은 실습 과정을 현장의 경험을 통한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고 있었고, 이 경우 실습을 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습교육의 의의를 높이 샀다. 즉, 실습교육에서의 경험의 질과 내용의 만족도를 떠나,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신의 활동이 현장에서 서비스로 바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는 것만으로 실습교육에 큰 의의를 두고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직접 상호대차를 나갔거든요... 상호대차가 뭔지를 알았어도,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랐는데, 직접 가서 책 갖고 오고 처리한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연구 참여자 7)

저희가 1월에 실습을 갔잖아요. 어... 그 시기에 봄에 하는 독서 관련 행사 진행 기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선생님이 저희한테 정보원을 주시고 도서를 선택하고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해보라고 했는데, 실제 진행되는 일을 하는 거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3)

##### 4.4.2 도전 1: 단순반복적인 업무 경험에서 오는 불만과 실망 (D-2)

실습교육을 경험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의의와 만족을 표시하는 듯하나,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불만족을 표시하였다. 실습교육 중 부과된 업무의 경우 실제 사서의 다양한 업무에 비해 실습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업무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이 모두 일치된 의견이었다. 이는 현장의 업무를 짧은 실습 기간만의 경험을 통해 대체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럴 수 있도록 사전에 훈련이 되어 현장에 투입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제한적인 실습업무 이룰테면, 바코드 부착이나 도서정리가 대부분인 현 실습교육 내용에 큰 불만을 표하였다. 단순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업 수준 및 경험의 차이가 있고, 실습지마다 업무의 범위나 양과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과 기관의 업무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실습지가 선정되어 이들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문도서관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배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청한 것도 있고, 제가 전문도서관에서 앞으로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먼저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일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랄까 업무에 대한 부분은 많이 못 배우지 않았나... (연구 참여자 2)

저는 공공도서관을 갔는데, 제가 공익생활을 거기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공익생활 한번

더 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바쁜 기간인지 다  
들 실습생들한테는 신경을 거의 안 쓰시더라구  
요. 그냥 무보수로 일한 느낌? (연구 참여자 6)

솔직히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잘 가르쳐  
주시기는 했는데, 단순반복적인 일만 하고... (연  
구 참여자 8)

#### 4.4.3 도전 2: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와 두려움 (D-3)

대부분의 실습생은 도서관 조직문화에 초기  
적응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것을 ‘어  
색함’이라는 말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직업교육에 흔히 있는 멘토와 멘티 혹은 슈퍼  
바이저와 관계에서 오는 많은 대화와 교류 속  
에서 실습의 경험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에서  
이들은 그 원인을 찾고 있었다. 즉, 실습교육을  
주도하는 실무자인 사서들이 각자의 바쁜 업무  
로 인해 서로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에 대한 불  
만을 토로하였다. 다른 한 축으로는 실습 참여  
자 당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부재와 자  
기효능감의 결여로 인해 어떻게 그 조직 분위  
기에서 질문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것인지  
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또 다른 원인으로 꼽  
고 있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재와 두려움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났다. 대부분의 참  
여자는 실습지에 가면 수업 시간에 배운 참고  
봉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  
는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  
나, 현실에서는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경험  
이 거의 전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

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실습업무  
내용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다. 이들은 실상, 이용자와 대면하여 커  
뮤니케이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이  
들과 만나 직면하고 대화할 기회를 얻고 극복  
하고픈 양가감정이 공존했지만, 이런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현실에 대해 더 큰 실망감을 표  
하였다.

일반적인 직장의 모습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회사의 모습은 좀  
뒤편까 활발하고, 활기차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았는데, 도서관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조용한데, 그게 도서관의 특성  
인거 같기도 하고, 헌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에  
요.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꺼려지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4)

저는 공공도서관이긴 했는데, (이용자와) 제가  
직접 대면할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  
히 직접 만나고 많이 해보고는 싶기도 했는데  
또 두렵고 부끄럽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 6)

#### 4.4.4 사서상 형성의 구체화 과정(D-4)

연구 참여자들은 도서관실습교육을 받기 전  
까지 부재했던 사서상에 대한 인식이 실습교육  
을 통해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장  
과정 중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큰 호의  
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실상은  
사서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까닭에 구체적인 사서상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습 기간 중 형성된 사서상은



‘전문적’ 혹은 ‘호감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수업 시간에서 배웠던 교과서적인 이상적인 이미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업무 현장에서 실제 업무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대부분 업무처리 과정에 형성된 것 이외의 개인적 성격이나 외적 요소들에서 이미지 형성이 기인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에는 ‘인간적인 매력’, ‘카리스마’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 기간 중 사서들과 함께 협업하거나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 중 생기는 이미지 즉 업무처리 과정과 능력에 기반한 사서상을 경험하고 형성할 기회가 없었음을 또 다른 아쉬움으로 지적하였다.

그런 거죠. 사실, 학생 때도 그렇게 많이 접할 일은 없었거든요. 공공도서관도 그랬고, 학교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수업에서 언급된 정도? 그 정도였죠. 딱 그 정도?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업무 맡고도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친절하시기도 하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연구 참여자 1)

#### 4.4.5 갈등, 성장,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수동적 대처(D-5)

연구 참여자들은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에서 경험 그 자체로 인해 만족을 표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자주 드러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의 필요성은 언급하지만 수동적인 대응 태도로 일관하였다. 즉, 실습 기간 중 얻게 된 내적 갈등과 문제, 자아 인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

을 찾거나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단순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현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표하고 회피하는 등 수동적으로 태도로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업무여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잘 모르겠는데... 생각도 들더라고요.....처음 물어보기가 좀 힘들었죠. 너무 쉬운걸 물어보는 거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많이 주저했어요. (연구 참여자 3)

### 4.5 실습 후 경험과 평가(E)

#### 4.5.1 실습기간 및 횟수의 부족(E-1)

실습교육 후 전체 평가에 있어 실습 과정의 경험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지만, 실습 기간이 짧고, 한편으로는 무언가 더 경험하고 배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좋은 학습의 경험은 반복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실습 기간을 늘리거나 실습의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과 방식으로 학과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인식되었다.

실습 기간을 3주 정도라고 들었을 때는 짧지 않겠는데? 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 감도 안 잡히기도 했구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거든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좀 배울만하다 싶었는데, 끝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한번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연구 참여자 1)

다 좋긴 했는데, 한번으로는 부족하단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실습을 한번 더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많이 배우고,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연구 참여자 3)

#### 4.5.2 관계 형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인식(E-2)

A 대학의 경우 실습지 선정과 배정에 있어 한 기관당 2인 이상의 실습 인원이 기본적으로 배정되다 보니, 평소 친한 학우들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경우 실습 현장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특히나 낯선 실습지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실습교육의 효과에 도움이 되었음을 증언하는 바, 자신이 선호하는 기관에 대해 독자적으로 가는 것 이상으로 2인 이상으로 실습교육을 받는 효과와 효율을 언급하였다. 다만, 일부 실습지의 경우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되고, 그중 일부 인원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일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실습생들과 대화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표현했고 이것은 사서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및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실습과정에서 경험한 부분(앞 절의 '(3) 도전2: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와 두려움(D-3)' 참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친한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의지가 되더라고요, 항상 같이 같은 업무를 한 건 아니고,

다른 걸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도서관 오고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같은데 안 왔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연구 참여자 3)

사서 선생님들이 각자 하는 일만 하는 것 같아서, 말 걸기도 어렵고 다소 딱딱한 것 같은 느낌? 어색한 기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분위기를 깨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참고 봉사와 같은 업무는 글썄요...제가 못봐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아...사서선생님이 엄청 자세히 알려주시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제가 도서관 현장에 있는데, 만약 누가 와서 물어본다면? 배운 데로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보나 지식이야 전달하겠죠, 근데, 그런 건 안 배우잖아요, 사람 대하는 방법? (연구 참여자 6)

#### 4.5.3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 제고(E-3)

기준에 가지고 있던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와 그 의미는 연구 참여자 모두 실습교육 전이나 그 이후나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도서관의 의미와 이미지에 본인의 현재 고민을 투영시켜서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가 실습 이후 달라진 부분이라고 밝혔다. 즉, 본격적으로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을 자신의 미래직업과 연결하고 투영해서 보는데, 성장 과정 중 단순히 오래 머물렀던 호감 가는 물리적 장소를 넘어 구체적으로 미래에 일할 근무지로 연결시켜 그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도서관의 이미지가 이전에 가졌던 호감 가는 안정적인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의미에서 변한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힘든 것도 사실이고, 취업 어렵죠. 그런데도 전 도서관에서 일하는 거, 이게 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연구 참여자 2)

역시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도서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봤는데, 잘하겠죠? (연구 참여자 4)

#### 4.5.4 미비한 후속 교육에 대한 불만과 필요 (E-4)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 후 후속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학습 열망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후속 교육을 통해서 취업 준비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기대감의 반영이었다. 또한, 실습 기간 동안 작성한 실습일지를 제출해도 단순히 학점을 위한 인중에 지나지 않았고 자신들의 저널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잘하고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불만도 토로하였다. 아울러 실습 교육 직후 시작되는 4학년 1학기의 교과 내용들 또한 실습기간의 경험을 강화하고 학습을 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결과적으로 실습의 경험이 단절되는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로나 취업에 대한 준비, 이를테면 사서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실습교육 이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도 후속 교육의 미비의 한 예로 꼽았다.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실습 기억, 오래 안 간다구. 그러는 거예요. 정말 좋았는데, 발표회까지? 그때까지가 전부이고, 도서관 쪽 취업하는 거 아니면, 그냥 갔다 왔다는 기억? 그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럴까? 그랬는데, 진짜 갔다 와서 발표회하고 끝나고 얼마 지나니까, 벌써 가물가물한거예요... 실습 이후 그것을 살려서 계속 공부할 수 있고 보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2)

니름 중요한 내용들을 배운 것 같은데, 시간 지났으면 잊어먹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교수님한테 여쭙봤는데요, 아무래도 또 현장하고 이론은 다르니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차라리 1학기 때에 관련한 수업이 있어서 연속적으로 더 배우면 어떨까?란 생각도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5)

#### 4.5.5 진로의 확신과 재설정 그리고 계속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E-5)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실습 과정을 통해 여전히 진로에 대한 확실한, 이를테면 소명을 느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일부 참여자들은 다른 진로를 생각해 봐야겠다고 언급한 경우도 있었고 아직도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어 여전히 계속적으로 걱정과 우려를 표하는 그룹도 있었다. 그러나, 세 그룹 모두 미래에 대한 큰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즉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조언을 간구하기보다는 단순한 우려와 걱정 혹은 자신감 결여와 의기소침을 표하며 수동적인 대응 방식을 보였다.

실습다녀와서도 잘 모르겠어요. 사서직 공무원 시험 보고 안 되면 또 일 년이고,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렇긴 한데, 도서관에서 일하는 건 나쁘지는 않고... (연구 참여자 2)

제가 뭘 잘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연구 참여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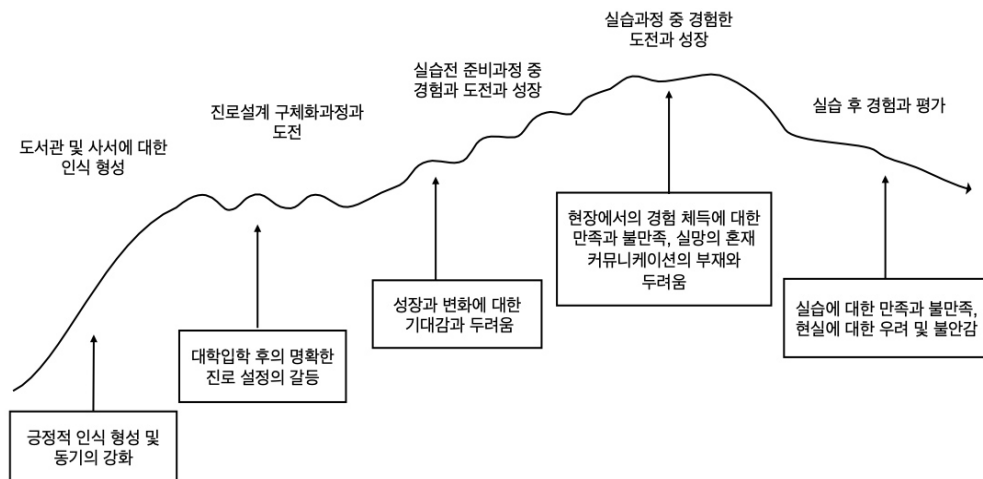
## 5. 결론

### 5.1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A 대학 문헌정보학과 4학년 학생들, 즉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을 체험하면서 느꼈던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경험의 구성요소와 환경적 정황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도서관실습 교육을 마친 예비사서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면담내용을 Giorgi의 현상학적 기술방법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사서들의 실습에 대한 경험 구성 요소는 5가지 구성요소와 17가지 하부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도서관 및 사서에 대한 인식형성과정’, ‘진로 설계의 구체화 과정과 도전’, ‘실습 전 준비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실습과정 중 경험한 도전과 성장’ 그리고 ‘실습 후 경험과 평가’로 요약되었다. 이것은 또한 처음 연구를 시작하며 제기했던 질문(2.1 연구문제), ‘예비사서들의 실습 교육경험은 무엇이고 그 현상내면에 자리한 의미는 무엇이며, 그 경험구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림 1>과 같이 시공간을 통해 표출된 경험의 연속과정의 일환으로 정리·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에서 경험한 경험내용과 경험구조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과 도서관실습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재구상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1> 예비사서들의 도서관실습 교육경험 구조

로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및 도서관실습 교육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대해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로를 구상하는 데 있어 도서관 사서직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진로가 가능한바, 각 직업군에 맞는 보다 구체화된 교과과정의 개편과 그에 맞는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 전반에 걸친 그들의 경험을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언급하였다(D-1). 이는 이미 성장 및 교육 과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고(A-1, A-2), 이로 인한 전공의 선택, 진로 결정과 같은 일련의 경험들이 실습기간의 경험을 긍정적인 면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D-1). 하지만 이들의 연이은 경험 구조를 분석해 보면 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은 이들의 진로 설계와 구체화에 있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1). 왜냐하면 비록 성장 과정에서 도서관이 긍정적인 인식으로 작용되어 전공 선택까지 하였더라도(A-1, A-2), 이것이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과과정의 제시와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B-1, B-2).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학과나 교수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교과과정의 개편과 각 교과목들 간의 새로운 로드맵(roadmap)을 제시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사서, 사서교사, 기록관리자,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자를 희망하는 학생들 각각에 대해 이들의 진로를 예상하여 수강해야 할 과목들의 순서 즉 로드맵 혹은 맞춤형 트랙(track)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걸맞은 실습 기관

과 실습 교육과정 또한 보다 다양하게 그러나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과에서는 기존의 도서관 이외에도 기록관 및 각종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실습 기관으로 개발하고 발굴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사서들의 자기효능감을 비롯한 자아 성찰 및 자기개발을 위한 내적 능력을 강화하고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습 과정 전반의 경험은 외부적으로는 '성장과 도전'이라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 성장과 도전의 기회인 실습교육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불안'과 '두려움'에 많은 부분이 잠식되어 있다는 점(C-1, D-3) 그리고 실습교육 이후에도 여전히 진로 설정과 학습과정에 대해 회의적이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고통하고 있다(E-5)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실습경험과 관련하여 '가슴이 벅차고', '인생의 기회', '고무된 감정'으로 언급되기도 하였지만(D-1), 극히 일부 참여자들에 불과했다.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은 주어진 기회와 문제 앞에서 매우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였고(D-5), 이는 아무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교육적 효과와 효율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현장에서의 다양한 도전과 문제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반응과 대처방식을 보여 주었고(D-3, D-5, E-2) 실습교육 이후에도 여전히 진로에 대해 불안과 깊은 회의감을 호소하고 있었다(E-5).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

정에서의 도서관 실습과정에 대한 다각도의 동기부여를 주지 않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내적 요인을 강화할 교육적인 내용이 사전에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습참가자가 도서관실습 교육에의 참여를 통해 얻게 될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내적 요인의 강화를 위해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이라는 교육영역을 비교과과정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권선영, 구정화 2018). 다시 말해, 자아 성찰을 통한 '내적 능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이라는 교육(항목)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김문영 1999; 김옥진, 이재창 2007). 이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관계성을 촉진하여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 실습 학생들의 경우 사서 및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D-3, E-2) 이 점을 고려하여 비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교육과정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서관 사서를 비롯한 정보전문가는 근본적으로 '서비스'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임을 잊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업무 내용의 내실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을 현장 경험을 통한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이 경우 실습을 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다는 점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D-1). 그러나,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는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도서관 업무를 이들에게 부과해 왔고, 형식적인 실습일지 작성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예비사서들은 큰 불만과 실망을 표하고 있었다(D-2). 그러나, 실습 기관의 도서관실무자 입장에서는 실습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업무를 부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과 중요하고도 전문적인 일들은 단순히 1-2주 만의 실습 경험만으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로 바코드 부착 및 도서정리와 같은 도서관의 '반복적이거나 단순한 업무'를 실습생들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해 왔다(유사라 2014; 차성중 2017).

이런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에 수행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기본 업무에 대한 제시가 도서관 측에서 선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실습지별로 실습기간 동안의 교육시킬 업무를 명확히 정하고 실습 커리큘럼을 개발·구비하여 사전에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면담 결과, 극히 일부 실습지를 제외하고는 실습 기간동안 어떠한 업무를 경험하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습내용 및 기본업무의 표준화와 사전 제시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국가직무 능력표준(NCS)의 능력 단위를 고려하여 예비사서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수준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한 대안이라 볼 수 있다(차성중 2016). 이 경우, 적어도 실습을 나가기 전 예비사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학과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 수준과 준비를 갖추어서 현장에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어 실습교육 준비와 실습교육 내용에 내실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실습 시기와 횟수에 대한 재고뿐 아니라 실습교육을 보다 탄력적이고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실습 교육에 대한 주요 불만으로 실습지 선정이 제한적이고도 자유롭지 못하며(C-2) 도서관실습 기간이 다소 짧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을 꼽았다(E-1). 기존의 실습교육 횟수나 기간을 늘리거나, 다양한 구성과 방법으로 실습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3-4주 동안의 실습 기간과 일회성의 실습경험은 그 실습교육과 연계하여 무언가 더 심화한 학습을 기획하고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 부족하다는 의견을 고려할 때, 좋은 학습경험은 재반복하고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즉, 실습 기간을 늘리거나, 실습의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학과차원에서 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유연하고도 탄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명 사서를 비롯한 정보전문가는 전문직이며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통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물론 실습은 앞으로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하면 아주 미약할 수 있지만 적어도 좋은 경험의 반복을 통해 충분한 자질을 검증할 기회는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습교육의 연속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실습 교육 이후의 후속 과정(follow-up)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습 후 교육과정으로 실습일지의 제출과 실습 발표회 시간을 통해 실습교육 참여자들의 실습 경험을 재생하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하

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실습교육의 경험을 강화하는 후속 교육과정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E-4). 만약 도서관계로의 진로 설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서관 진출에 더욱 지원을 강화해 줄 교과 내용과 프로그램으로의 안내가 필요하고, 도서관실습 교육 이후 도서관 외 다른 분야의 진로 설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설계와 구성을 이어가는 프로그램과 지도가 마땅할 것이다. 실습 전 사전교육의 필요성만큼이나, 실습 후 후속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또한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영역이다.

요약하자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실습교육 커리큘럼은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 현장 모두 합심하여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실습 기간과 실습 기관 개발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과에서는 실습교육 이전에 학생들의 선행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교육을 실시하고, 예비사서들이 자신의 미래와 직업개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내·외적 동기부여와 힘을 기를 수 있는 비교과 교육과정 내용들을 기획하여 이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직업적 진로영역에 대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과과정 이수 로드맵 혹은 직업별(트랙별) 교과과정에 대한 지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습교육 이후의 후속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로 실습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심화학습 및 커리어 개발로 이어

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이기도 효과적인 실습교육은 실습참가자들의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교과과정을 바탕으로 실습 과정을 통해 능력을 검증받고, 미래의 계획을 확고히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5.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실습참가자들 즉 교육수요자들이 도서관실습 교육과정 중에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기술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가 도서관실습 교육에 대한 경험 이면의 맥락과 전체 상황에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예비사서들이 실습 기간 동안 체험한 경험을 종합적이기도 깊이 있게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교육의 개선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 결과에서 나온 특성들과 결과들이 모든 예비사서들의 경험과 의미형성 과정이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질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반화를 통한 예측이 아니라, 소수 그룹의 주관적 경험과 보이는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함이다 (Patton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의 표본들의 경험과 그 결과가 서로 비교·분석되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도입하여 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후속연구들을 통

해 다른 유사 혹은 특이 집단들(예, 다른 지역/학교들의 예비사서들의 경험, 예비교사/간호사들의 실습경험, 다른 전공 인턴십 지원 학생들의 경험 등)의 경험과 특성(idiosyncrasies of specific groups)들이 심도깊게 기술되어 이해될 뿐 아니라, 상호 특성들이 서로 비교되는 과정에서 고유하고도 독특한 특성이 유발되는 사회구조와 맥락들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Silverman 2005).

둘째, 본 연구가 기록하고 분석한 경험은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의 경험에 국한된 것이다. 이들을 교육한 실습지도자 즉 교육공급자인 사서는 3~4주간 동안 이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기술과 그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 이 경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즉, 양측의 경험을 모두 종합하여 이해할 때 보다 효과적이기도 효율적인 도서관실습 교육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도서관실습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관중별, 주제별, 지역별, 이용자별, 기능별로 특성화된 상황과 맥락에 대한 기술과 분석 없이 일반적인 도서관을 대상으로 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각 관중별 도서관과 그 상황과 맥락들이 기술되고 그 위에 도서관실습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곽동철. 2011. 문헌정보학 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69-83.
- 구본영. 1983. 한국에 있어서 사서실습교육의 실태조사연구. 『도서관학』, 10(1): 3-37.
- 권선영, 구정화. 2018. 예비사서들의 도서관실습 지원을 위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프로그램 모의실행에 대한 요구조사 및 만족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253-275.
- 권선영, 박장순. 2014. 예비사서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321-348.
- 김문영. 1999.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8(1): 83-96.
- 김분한 외.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간호과학회지』, 29(6): 1208-1220.
- 김성준. 2011a. 사서교사 교육실습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83-203.
- 김성준. 2011b. 예비사서교사의 교육실습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93-213.
- 김옥진, 이재창. 2007. 자기성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35-653.
- 노동조. 2009.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451-468.
-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운영모형 및 표준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55-82.
- 노영희. 2005.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59-80.
-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박지영, 박성재. 2017. 활동이론을 적용한 사서인턴십 개선 방안 연구: 인턴십 참여자의 관점에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307-332.
- 유사라. 2012. 전문가양성을 위한 직무관찰식 인턴십 시행연구: 문헌정보학 전공사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113-129.
- 유사라. 2014. 인턴기관(도서관) 실무자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진단 사례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2): 189-205.
- 이남인. 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24: 91-121.

- 이수영, 김유승. 2012. 문헌정보학 분야 공공도서관 실습교육에 관한 연구: S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147-168.
- 정종기. 2011. 예비사서의 도서관실습을 위한 저널피드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277-297.
- 차성중. 2015.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의 현장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학제별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355-379.
- 차성중. 2016.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국가직문능력표준(NCS) 기반의 문헌정보학 현장실습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457-491.
- 차성중. 2017. 문헌정보학 전공 현장실습에 대한 실습지도자의 인식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133-156.
- Baillie, L. 2015. "Promoting and evaluating scientific rigour in qualitative research." *Nursing Standard*, 29(46): 36-42.
- Billups, F. 2014. "The quest for rigor in qualitative studies: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researchers." *The NERA Research*, 52: 10-12.
- Colaizzi, F. U.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and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Giorgi, A. 1970. *Psychology as a human science*. NY: Harper & Row.
- Giorgi, A. and B. Giorgi. 2003.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In P. M. Camic, J. E. Rhodes & L. Yardley (Ed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Expanding perspectives in methodology and design* (pp. 243-27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incoln, Y. and E.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CA: Sage Publications.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sup>nd</sup> ed.)*. CA: Sage.
- Schutt, R. 2006. *Investing the social world (5<sup>th</sup> ed.)*. CA: Pine Forge Press.
- Silverman, D. 2005. *Doing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handbook (2<sup>nd</sup> ed.)*. CA: Sage.
- Van Kaam, A. 1969.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NY: Doubleda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 Sung-Jong. 2015.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the field practice progra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2): 355-379.
- Cha, Sung-Jong. 2016. "A study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based curriculum design of the practical training cours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1): 457-491.
- Cha, Sung-Jong. 2017. "A study of practical instructors' recognition on the field practice program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133-156.
- Jung, Jong-Kee. 2011.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 application of journal feedback program in pre-librarians' library field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277-297.
- Kim, Boon Han et al. 1999. "A comparison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Kim, Mun-Young. 1999. "Effect of self growth program on the state anxiety of nursing students before initial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8(1): 83-96.
- Kim, Oc Jean and Jae Chang Lee. 2007.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the self-growth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ncreasing of self-concept, self actualization and career matur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3): 635-653.
- Kim, Sung-Jun. 2011a. "A study on the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teacher librarians' practice teaching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183-203.
- Kim, Sung-Jun. 2011b.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 librarians' teaching practice program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193-213.
- Koo, Bon-Young. 1983. "A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library practice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0(1): 3-37.
- Kwak, Dong-Chul. 2011. "A study on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th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69-83.
- Kwon, Sun Young and Jang Soon Park.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pre-service teacher librarian during student teach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321-348.

- Kwon, Sun Young and Joung Hwa Koo. 2018. "Developing a 'pre-training program' to support pre-librarians' library practicum: Pre-librarians' needs and satisfaction assessment before and after running a mock pre-training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1): 253-275.
- Lee, Nam-In. 2005.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esearch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y*, 24: 91-121.
- Lee, Su-Young and You-Seung Kim. 2012. "A study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hool's practical training program: Focused on a case of S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147-168.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2010.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Noh, Dong-Jo.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curriculum for educ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451-468.
- Noh, Younghee, In-Ja Ahn, and Sang-Ki Choi. 2012. "A study of the curriculum operating model and standard courses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55-82.
- Noh, Younghee. 2005. "A study 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ecialized programs in curriculu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1): 59-80.
- Park, Zi-young and Sung-jae Park. 2017. "Enhancement of library internship reflecting participants' opinions based on activity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307-332.
- Yoo, Sarah. 2012. "A case study of job-shadowing internship program for information specialis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113-129.
- Yoo, Sarah. 2014. "Internee's assessment of library internship program: capturing of the use of LIS practicu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2): 189-205.